

내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will you be my friend?)

송미옥(한국호스피스협회 총무, 대구 동산의료원 호스피스 실무책임자)

오늘 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내가 나의 고통을 털어 놓는 동안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을 꼭 잡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픔을 털어놓고 마음 놓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무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들어 주기만 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친구란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그곳에 있어 주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군가가 필요해요.
나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마 내일 나는 당신의 고통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꽃

고형렬

복숭아 꽃빛이 너무 아름답기로서니
사람꽃 아이만큼은 아름답지 않다네
모란꽃이 그토록 아름답다고는 해도
사람꽃 처녀만큼은 아름답지가 못하네
모두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바라보게.
저 사람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못 나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여도
잉어가 아름답다고 압만 쳐다보아도
아무런들 사람만큼은 되지 않는다네
사람만큼은 갖고 싶지진 않는다네